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2015년 4분기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각호 ⁰²	—	각호02(各號)[가코] 「명사」 각각의 조항.	표제어 추가
검측하다 ⁰²	검사하고 측정하다.	「1」 검사하고 측정하다. 「2」 《사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경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을 찾아내거나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조치하다.	뜻풀이 추가
고문 ⁰⁴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 고신 ⁰⁷ (拷訊)·고형 ⁰¹ (苦刑). ㉡ 전기 {고문}/(고문을) 받다/{고문에} 시달리다/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 전기 {고문}/(고문을) 받다/{고문에} 시달리다/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뜻풀이 수정
고서 ⁰³	《동사 어간이나 어미의 ‘-으사-’ 뒤에 붙어》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임이 강조된다. ㉠ 그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하고서} 나가 버렸다./ 그는 장가를 {가고서} 사람이 달라졌다./너도 치마를 {입고서} 걸어 봐./상한 음식을 {먹고서} 배탈이 났다./어머니는 나를 {업으시고서}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1」 《동사 어간이나 어미의 ‘-으사-’ 뒤에 붙어》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임이 강조된다. ㉠ 그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하고서} 나가 버렸다./ 그는 장가를 {가고서} 사람이 달라졌다./너도 치마를 {입고서} 걸어 봐./상한 음식을 {먹고서} 배탈이 났다./어머니는 나를 {업으시고서}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2」 《동사의 어간이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앞의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뒤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그 래 {가지고서} 오늘 안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겠어?/바보가 {아니고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	뜻풀이 추가

꼼짝	꼼짝 <u>못하다</u>	꼼짝 <u>못 하다</u>	관용구 표제어 수정
는데	[1]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한데} 이번 일에는 적합지 않다./저분이 그 렬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제가 {알아보았사운데} 사실은 그와 다르웁니다.	[1]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한데} 이번 일에는 적합지 않다./저분이 그 렬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제가 {알아보았사운데} 사실은 그와 다르웁니다.	뜻풀이 추가
	[2]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무가 정말 {큰데}./어머님이 정말 {미인이신데}.	[2] 「1」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무가 정말 {큰데}./어머님이 정말 {미인이신데}. 「2」 ((의문사와 함께 쓰여)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 옷은 <u>얼 만데</u> ?/누가 제일 <u>예쁘데</u> ?	
노동보호	노동 과정 중에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며 노동의 악조건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	노동 과정 중에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며 노동의 악조건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	뜻풀이 수정
디 ⁰⁷	「1」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물이 {맑다}/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그분은 참 {부지런하시다}/아기가 잠을 오래 {잤다}/동생이 일 등을 {했다}/고향에 가 보는 것이 노인의 {소원이었다}/하늘을 보니 눈이 {오겠다}/약속을 꼭 {지키겠다}.	「1」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건이나 사실, 상태를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물이 {맑다}/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그분은 참 {부지런하시다}/아기가 잠을 오래 {잤다}/동생이 일 등을 {했다}/고향에 가 보는 것이 노인의 {소원이었다}/하늘을 보니 눈이 {오겠다}/약속을 꼭 {지키겠다}.	뜻풀이 수정

뒤엿것	—	뒤엿-것[-에견/-엔견] (뒤엿것만[-에견-/-엔견-]) 「명사」 뒤에 오는 것. 또는 뒤에 있는 것. 「비」 후자.	표제어 추가
말 ^이	말(을)[말(도)] <u>못하다</u>	말(을)[말(도)] <u>못 하다</u>	관용구 표제어 수정
술래잡기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다른 숨은 아이들을 잡는데, 술래에게 잡힌 아이가 다음에 술래가 된다. ≍술래놀이 「1」.	「1」 =숨바꼭질 「1」. 「2」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잡는데, 술래에게 잡힌 아이가 다음에 술래가 된다. ≍술래놀이 「1」.	뜻풀이 추가
앞엿것	—	앞엿-것[아페견/아펜견] (앞엿것만[-페견-/-펜견-]) 「명사」 앞에 오는 것. 또는 앞에 있는 것. 「비」 전자.	표제어 추가
어요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어'와 보조사 '요' ¹⁷ 가 결합한 말이다. 『지금 밥 {먹어요}/벌써 밥 {먹어요}?/빨리 밥 {먹어요}/우리 같이 {먹어요}/물을 삼키지 말고 {빨어요}/그동안 맘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나 '이다'의 어간 뒤에 붙어)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어'와 보조사 '요' ¹⁷ 가 결합한 말이다. 『지금 밥 {먹어요}/벌써 밥 {먹어요}?/빨리 밥 {먹어요}/우리 같이 {먹어요}/물을 삼키지 말고 {빨어요}/그동안 맘고생 많이 {하셨겠어요}/나는 {학생이어요}/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어요}.	문법 정보 수정
어제그저께	—	어제-그저께 [I] 「명사」 '엇그저께 [I]'의 본말. [II] 「부사」 '엇그저께 [II]'의 본말.	표제어 추가
으려니 ^이	((「르」를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마음속으로 추측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겠거니'에 가까운 뜻을 나타내며 주로 동사 '하다', '생각하다', '싶다' 따위의 안기는 문장을 만든다. 『그가 지금쯤은 집에 도착해 {있으려니} 하고 찾아갔다./저 여자도 한 때는 젊음을 {과시했으려니}하고 생각했다.	((「르」를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뒤에 붙어)마음속으로 추측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겠거니'에 가까운 뜻을 나타내며, 주로 동사 '하다', '생각하다', '싶다' 따위와 함께 쓰인다. 『그가 지금쯤은 집에 도착해 {있으려니} 하고 찾아갔다./저 여자도 한 때는 젊음을 {과시했으려니}하고 생각했다./그 시간이면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으려니} 하고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해 보니 사람이 많았다.	문법 정보 수정

몸 ⁰	((어간 말음이 자음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민음}/{죽음}/{웃음}/{겉음}.	((‘르’를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민음}/{죽음}/{웃음}/{겉음}/{절음}/{수줍음}.	문법 정보 수정
저리다 ⁰¹	「형용사」 【…이】 「1」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 나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으면서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몸을 자주 뒤틀면서 자세를 바로 잡고 하였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2」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듯이 아프다. ㉠ 또다시 오늘 새벽의 일이 떠오르며, 뒷머리가 바늘로 후비듯 {저려} 왔다. 《최인훈, 가면고》 「3」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 박 초시가 죽기 전날에 떴 지어 몰려가서 창고를 털어 냈던 점촌과 새끼내 사람들은 괜히들 마음이 {저려} 초상집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문순태, 타고르는 강》	「1」 「형용사」 【…이】 「1」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 나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으면서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몸을 자주 뒤틀면서 자세를 바로 잡고 하였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2」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듯이 아프다. ㉠ 또다시 오늘 새벽의 일이 떠오르며, 뒷머리가 바늘로 후비듯 {저려} 왔다. 《최인훈, 가면고》 「3」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 박 초시가 죽기 전날에 떴 지어 몰려가서 창고를 털어 냈던 점촌과 새끼내 사람들은 괜히들 마음이 {저려} 초상집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문순태, 타고르는 강》	뜻풀이 추가
	「11」 「동사」 【…이】 「1」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다. ㉠ 두 팔로 온몸을 지탱하고 있다. 손가락 마디가 {저린다}. 《황석영, 입석 부근》/잠시 동안 궁둥이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손은 곧 {저린다}. 이럴 땐 손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승옥, 확인해 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2」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다. ㉠ 무슨 일인지 귀박이 훑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전승세, 낙월도》/장난으로 그러는 것이려면 발바닥이 얼얼하며 복숭아뼈까지 {저린다}. 《최명희, 혼불》 「3」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픈 느낌이 들다.		

전율 ⁰²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림. ㉠ 계울 ⁰² (悸慄)·공률 ⁰³ (恐慄)·능금·순율·전송 ⁰³ (戰慄)·전전율률(戰戰慄慄). ㉠ {전율을} 느끼다./강제 수용소의 이야기는 그를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게 했다./충직하였던 하인들이 죽어 나가던 그해도 {전율} 없이 회상할 수가 없다. 《박경리, 토지》	「1」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림. ㉠ 계울 ⁰² (悸慄)·공률 ⁰³ (恐慄)·능금·순율·전송 ⁰³ (戰慄)·전전율률(戰戰慄慄). ㉠ {전율을} 느끼다./강제 수용소의 이야기는 그를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게 했다./충직하였던 하인들이 죽어 나가던 그해도 {전율} 없이 회상할 수가 없다. 《박경리, 토지》 「2」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설화 속에 감춰진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때로 내게 {전율과도} 같은 감동까지 주었다.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감동이란 이상한 것이다. 나는 전신에 일종의 {전율}을 느꼈다. 용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느낌이였다. 《이병주, 행복어 사전》/윤은 피부로 스며드는 행아의 체온을 느꼈다. 감미로운 {전율이} 윤의 전신을 스쳐 갔다. 《선우휘, 깃발 없는 기수》	뜻풀이 추가
전율하다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리다. ㉠ 계울하다·공률하다·능금하다·순율하다·전송하다 ⁰³ ·전전율률하다. ㉠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전율했다}./몇몇은 분노로 더욱 격렬해졌지만 우리 대부분은 경악하고 {전율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문열, 그해 겨울》	「1」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리다. ㉠ 계울하다·공률하다·능금하다·순율하다·전송하다 ⁰³ ·전전율률하다. ㉠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전율했다}./몇몇은 분노로 더욱 격렬해졌지만 우리 대부분은 경악하고 {전율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문열, 그해 겨울》 「2」 (비유적으로)감격에 겨워 몸이 떨리다. ㉠ 나는 그의 생생한 연기를 보고 {전율했다}.	뜻풀이 추가
주체 ⁰¹	주체(를) 못하다	주체(를) 못 하다	관용구 표제어 수정

<p>화두⁰⁴</p>	<p>「1」 이야기의 첫머리. ¶ {화두를} 바꾸다/영철이는 또 이데올로기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꺼냈다./안평의 본시의 성질이 또 나오려는 것을 본 수양은 {화두를} 돌리기 위해서 끼어들었다. 《김동인, 대수양》</p> <p>「2」 《불교》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이르는 말. ¶ {화두를} 던지다/{화두를} 잡다.</p>	<p>「1」 이야기의 첫머리. ¶ {화두를} 바꾸다/영철이는 또 이데올로기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꺼냈다./안평의 본시의 성질이 또 나오려는 것을 본 수양은 {화두를} 돌리기 위해서 끼어들었다. 《김동인, 대수양》</p> <p>「2」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것. ¶ {화두가} 되다/{화두로} 삼다/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음 달에 있을 축구 시험이다.</p> <p>「3」 《불교》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이르는 말. ¶ {화두를} 던지다/{화두를} 잡다.</p>	<p>뜻풀이 추가</p>
------------------------	--	---	-------------------